

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6

한국 노인돌봄 로봇의 사회기술적 배치와 돌봄 관계의 재조직: ‘부모사랑 효돌’ 사례를 중심으로

Reconfiguring Care through Sociotechnical Arrangements: The Case of
the Korean Elderly Care Robot “Hyodol”

신희선

이 발표는 한국의 돌봄로봇이 공공 노인돌봄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다룬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돌봄은 오랫동안 가족, 특히 여성 가족 구성원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인돌봄은 점차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 발표는 이러한 전환의 틈에서 등장한 돌봄로봇 ‘부모사랑 효돌’에 주목한다. 효돌은 2017년 출시된 봉제인형 형태의 로봇으로, 주로 지자체와 복지기관의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통해 보급되어 왔다. 효돌은 노인에게 식사와 약 복용, 운동, 기상과 취침 등을 안내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봇 사용 기록을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이 발표는 로봇회사, 복지관, 노인 사용자의 가정 등에서 수행한 다중현장 민족지를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왜 한국의 노인돌봄 로봇 효돌은 ‘손주’의 모습으로 등장했는가? 효돌과 함께 사는 일상은 노인, 복지기관의 돌봄인력, 회사 직원 사이의 관계와 책임을 어떻게 새롭게 짜는가? 효돌이 공공 노인돌봄의 일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지자체의 사업 기획, 복지기관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돌봄인력의 방문과 사용 지원, 회사 직원의 교육과 기술지원, 노인 사용자의 일상 속 적응이 함께 얹혀 있다. 즉 로봇돌봄은 로봇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둘러싼 여러 인간 행위자와 제도적 장치들의 연결 속에서 성취된다. 이를 통해 이 발표는 로봇이 인간 돌봄을 단순히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가족, 국가, 시장, 기술 사이에서 다시 나누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기술적 장치임을 보인다.

신희선은 2026년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펠로우로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도입이 인간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작동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학위논문 『친밀과 효율: 로봇은 노인을 어떻게 돌보는가』는 한국 노인돌봄 로봇 효돌의 개발, 보급, 사용, 평가 과정을 분석하여, 돌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기술적·제도적 실천들이 어떻게 정서적 유대와 지속적인 돌봄 관계가 형성될 조건을 만들어내는지 탐구한다. 박사논문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저를 껴안아 주세요(Hug Me Tight: A Robot Story)』를 공동 연출했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겨레에 「신희선의 로봇비평」을 연재했다.

일시: 2026년 4월 28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4호